

新羅統一期の屋舎建築

申 榮 勳

一、序

다 아다싶이 『三國史記』 雜誌 屋舎條엔 眞骨로 부터 百姓에 이르기까지의 骨品에 따라 짓고 살 수 있는 規模, 資材, 構造, 裝飾, 壯嚴, 裝置 등을 條目別로 列記하였다. 이 記事는 統一期 屋舎建築을 考察하는데는 基本이 되는 것이므로 建築史家들은 누구나 言及하고 있다. 그러나 그 취급의 방법은 서로 달라서 그 內容을 고스란히 轉載하여 소개하는 일로 끝내는 학자가 있고 또는 條目別로 建築的인 識見을 부가하면서 풀이 하거나 解釋을 시도하는 학자도 있다. 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의되고 정리되어야 할 조항이 그냥 남아있기도 하고 잘 못 해석하여 바로 잡아야 할 내용도 있다.

屋舎條의 記事가 매우 包括的이고 概念的이어서 新羅人이나 글을 집필한 분들과 概念을 함께 하지 않는 語彙 등의 理解不足에서 混同이 일어난다.

一九七〇年代의 慶州에서는 發掘이 계속되었고 일부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발굴은 古墳과 寺址에 집중되고 있을뿐 屋舎와 연관되는 遺址는 하나도 注目되지 않았다.

物證을 얻지 못한 狀況下에서의 內容把握은 자칫 잘못 짚기 쉽다. 比較考察이 可能하지 않으면 規模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識見에 의지하는 다수한 해석이 시도될 수 밖에 없었다.

『三國遺事』의 첫머리에 辰韓을 이야기 하면서 「三十五金入宅」과 「四

節遊宅」에 관한 기록을 하였다. 서라벌에 있었던 富潤大宅의 宅號를 列記한 내용이다. 當代 第一級の 第宅들이다. 眞骨의 소유로 王宮에 비견되는 대규모의 건물이었다.

高句麗古墳壁畫에 建物圖가 있다. 主人公들이 生前에 居處하던 집을 描寫하였다고 해석되는 내용이 담겼다. 主人公들은 王이거나 王族들로 그들의 第宅은 역시 당대의 제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新羅의 第宅記錄과 高句麗의 壁畫 建物을 比肩하여 보면 얻어낼 수 있는 事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이 점에 注目하였다.

종래의 해석에서 나는 여러가지 誤謬를 犯하였고 때에 따라 해석의 內容이 달랐다. 『한국의 살림집』②에서 비로서 「三十五金入宅」과 연관시켜 가면서 屋舎條를 다시 한번 해석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 내용도 만족스러운 것은 못되었다. 「三十五金入宅」에 이어 기록된 「四節遊宅」에까지 마음 쓰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고구려고분 벽화내용과의 명확한 比肩을 시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三十五金入宅」에 注目하도록 敎示한 글은 「新羅金入宅考」(李基東, 震檀學報 四十五호)이었다. 李敎授의 卓見에 힘입은바 컸으나 그분도 「四節遊宅」에 대하여는 별다른 考察이 없었다.

이 글에서는 四節遊宅條에도 注目하였고 고구려고분의 壁畫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屋舎條를 다시 해석하면서 新羅屋舎建築의 形狀을 파악하려 하였다. 나로서는 여러번의 착오를 여기에서 바로 잡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新羅의 서술, 서라벌의 규모가 과연 얼마만 하였을까 하는 점에도 의문을 가졌다. 時代에 따라 규모가 달랐을 것이나 盛期에는 과연 어떠한이었을까 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현재의 慶州를 얻두에 두고 서라벌을想定하면 자칫 혼란이 생긴다. 그 혼란을 바로잡아 보려 하였다.

二、徐那伐의 建設

開國과 더불어 서라벌 건설을 시작한다. 朴赫居世는 六村主에 의하여 주대되나 有德한 高墟村主 蘇伐公의 後見을 받는다. 이로 인하여 최초의 王宮은 高墟村 畔도에 속한 南山西麓, 지금의 昌林寺 자리에 건축된다. ③

三國史記는 六村은 「分居山谷之間」④하는 형세이었다고 하였다. 지금의 昌林寺址가 그러하듯이 山谷間에 있고 그 골짜기는 넓은 터전이 못 된다. 平野 보다도 山形에 따라 골짜기에 집짓고 살았다.

이 시기의 山谷間 私家들은 대부분 귀를 집이었다고 한다. ⑤ 塞北地方의 百姓들 집이 움집이었다고 ⑥ 하는 것에 비하면 地表上에 노출되어 있는 山谷間의 구조체이었다.

이런 집 萬餘戶가 하나의 小國을 이루었다고 한다. ⑦ 六村이 辰韓의 十二國중 하나인 斯盧國이고 ⑧ 그 나라에 萬餘戶가 예속되어 있었으면 六村은 각각 千六百餘戶씩 거느리는 규모이었다고 하겠다.

六村 一、闕川 楊山村 二、突山 高墟村 三、觜山 珍支村 四、茂山大 樹村 五、金剛山 加里村 六、明活山 高耶村 ⑨
이들 六村이 據點으로 삼고 있는 산들은 지금의 慶州에서 본다면 中心部 둘레에 위치하여 있다.

始祖는 高墟村의 宮室을 떠나 平野에 新營한 京城으로 옮기고 金城이라 부른다. ⑩ 土築하였고 둘레는 二千四百七尺⑪의 길이이고 四方에 城門을 높다랗게 건설하는 平地城이다.

始祖 二十六年(B, C 三二年) 正月에 城內에 宮室 짓는다. 성벽 쌓기 시작하지 五년만의 일이다. 이 시기의 土築이나 建築의 기술은 상당한 발전을 하였다.

南解次次雄 元年(A, D 四年)에 樂浪兵이 쳐들어와 金城을 여러겹에 위싼다. 격전이 있었으나 공격에 실패한 낙랑병들은 스스로 물러가고

만다. 金城은 그만큼 견고하게 축조되었던 것이다.

始祖 六十年(A, D 三)에 金城南門이 지진에 진동한다. 이 被害의 소식은 南門이 壯大하였음을 알려 준다.

六村의 勢力家들은 金城建設에 참여하고 子弟들을 위하여 山谷의 根據地에서 金城 주변의 平野로 版圖를 확장하면서 第宅을 마련한다. 이로 인하여 金城 주변에는 수많은 집들이 자리잡게 되었다.

村主들은 金城 주변 市街地 形成에 앞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住家는 城의 東·西·北쪽에만 짓고 남쪽은 官衙地域으로 남겨둔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沾解尼師今 三年(二四九) 七月에 金城 남쪽에 南堂(都堂)을 짓는다. 中央政廳의 성격⑫을 지닌 官衙建物이다. 이후로 이 방면에 執事者 등의 관아 건물들이 들어섰고, 넓은 터전도 남겨두어서 實聖尼師今 十四年(四五八) 七月에는 그 터에서 활을 쏘는 hunt을 하였다.

金城 東·西·北 三面에는 집들이 즐비하게 자리잡았다. 이 점은 三國史記의 여러 기록에서 유추할 수 있다.

祇摩尼師今 十二年(一二三) 五月에 金城의 동쪽 땅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집이 무너졌고 마침내 그 자리는 못이 되었다. ⑬ 이 못을 東池라고 불렀다. 沾解尼師今 七年(二五三) 四月에 東池에 龍이 나타나는 이변이 있었다.

이들 기록의 暗示는 東川(闕川·北川)⑭의 한 물줄기가 金城 東쪽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意味일 수도 있다. 이 점은 後代의 雁鴨池, 半月城 孩子の 물을 공급해 주는 水源이 되었을 것이라는 推定을 할 수 있게 하며 皇龍寺의 龍 出現과도 연관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金城東의 東池를 東泉이라고 본다면 南岸一帶平野를 詞腦野라 부른다. ⑮ 이 부근에는 집들이 그냥 남아 있었고 後出할 三十五金入宅의 思內(詞腦?)宅과 같은 第宅도 있었다.

東川(北川)이 홍수지면 金城을 위협한다. 阿達羅尼師今 七年(一六〇) 夏四月에 폭풍이 불면서 큰 비가 내려 闕川(北川)이 범람하여 金城北門

을 무너뜨리고 北門밖의 人家들을 휩쓸어 갔다.

金城 東·北의 宅들이 洪水被害를 입었는데 西쪽의 宅들은 불에 타는 災害를 당하였다. 味鄒尼師今 元年(二六二) 七月에 金城西門에 불이 나서 이웃한 人家에 먼저 百餘區가 延燒하였다. 큰 피해를 입었다.

金城 完成을 계기로 人家들은 六村의 根據之地로부터 平野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터전에 경영되었다. 귀를 집에서 벗어나 本格的 木造의 집으로 構造되고 그 규모도 차츰 壯大하여 갔다.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三、四節遊宅考

一然스님은 新羅를 말하는 첫머리에 赫居世王의 治績에 앞서 「三十五金入宅」과 「四節遊宅」이란 항목을 『三國遺事』에 실고 있다. 이들 내용이 아주 重大하여 新羅를 이야기 함에는 무엇보다도 앞선다고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이 敎示에 따라 우리도 주목해 보아야겠다. 편의상 먼저 四節遊宅條부터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又四節遊宅

(가) 春 東野宅、夏 谷良宅、秋 仇知宅、冬 加伊宅

(나) 第四十九 憲康大王代 城中無一草屋 接角連牆 歌吹滿路 晝夜不絕

이 項目은 (가), (나)로 區分된다. (가)는 四季에 따라 徐那伐內의 名所로 四宅을 巡訪한다는 내용이고 (나)는 新羅盛期 都城內의 狀況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잠시 미루어 두고 (가)의 四宅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結論부터 말하자면 이들 四宅은 三十五金入宅 중에서도 뛰어난 富潤大宅이었다고 해석된다. 내 생각으로는 이들 네 집은 六村의 根據之地의 本宅들이라고 여겨진다. 三國遺事에 六村의 기록이 있다.

辰韓之地 古有六村

一曰 關川 楊山村 南今 曇巖寺 長曰 謁平 初降于 瓢崑峰 是爲及 梁部 李氏 祖 弩禮九年置. 名及 梁部 本朝太祖 天福五年 庚子 改中興部. 波替 東山 彼上 東村屬焉.

二曰 突山 高墟村 長曰 蘇伐都利 初降于 兄山 是爲 沙梁部、鄭氏祖 今曰 南山部 仇良伐 麻等鳥 道北 廻德等 南村屬焉.

三曰 茂山 大樹村 長曰 俱(仇)禮馬 初降于 伊(比)山 是爲 漸(涿)梁部 又 牟梁部 孫氏之祖 今云 長福部 朴谷村等 西村屬焉.

四曰 薺山 珍支(賓支、氷之)村、長曰 智伯虎 初降于 花山 是爲 本彼部 崔氏祖 今曰 通仙部 柴巴等 東南村屬焉 致遠乃 本彼部人也 今 皇龍寺 南 味吞寺 南 有古墟 云是 崔候古宅也 殆明矣.

五曰 金山 加里村(今 金剛山 栢栗寺之北山也) 長曰 祇(只)沱 初降于 明活山 是爲 漢(韓) 岐部 裴氏祖 今云 加德部 上下 西知 乃兒等 東村屬焉.

六曰 明活山 高耶村 長曰 虎珖 初降于 金剛山 是爲 習比部 薛氏祖 今 臨川部 勿伊村 仍 仇旆村 關(葛)谷等 東北村屬焉.

이들 六村이 據點으로 삼았다는 山은 지금의 慶州에서 보면 東西南北 四方에 있다.

楊山村은 曇巖寺 부근에 있었다. 曇巖寺址는 지금 蚊川橋 지나 五陵으로 가면 彦陽가는 길가에 있다. ⑩ 이 부근의 山은 南山이다. 경주 중심부에서 약간 西南便에 있다. 南山北端部位에 해당한다.

高墟村은 南山部로 南山西麓에 있다. 赫居世가 첫 宮室 경영한 昌林寺터가 이 일대에 있다. 南山部에 소속된 仇良伐은 조선조 경주소속 驛院이었던 「仇良火村院(存府南四十六里)」에서 찾을 수 있다.

大樹村은 慶州의 서쪽에 있다. 지금도 毛良里의 地名을 남기고 있는 一帯이니 조선조 慶州府 驛院중 牟梁驛은 府의 西쪽 二十三里에 있었다. 珍支村은 本彼部이고 崔致遠古宅^⑪이 있는 狼山一帶가 근거지이다.

加里村은 漢岐部로 지금의 金剛山一帶에 있었다. 栢栗寺 부근이 본거지이었다. 경주의 북쪽에 있다.

高耶村은 경주의 동쪽에 있었다. 高耶村 소속의 仇旆村은 仇於로 해석되는데 조선조 慶州府의 仇於驛이 東四十八里에 있었다. 高耶村은 習比部이고 習比部에 奈歷이 있었다고 『三國史記』 祭祀志에 보이며 그 奈歷은 狼山이므로 高耶村은 明活山에 있어 習比門 밖에 위치하였다.

六村은 東西南北의 四村과 都心에 해당하는 楊山과 珍支村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는 해석을 얻게 된다. 四節遊宅은 중심과의 마을 말고 四方의 村主本宅을 철에 따라 돌아다니는 놀이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봄에 가는 東野宅은 서라벌 동편에 있었다. 詞腦野의 동편에 있는 큰 맥, 조선조 경주부 소속의 東院(在府東七里)이 있었던 부근에 자리잡은 高耶村 소속의 大宅이다. 東海口로 가는 일대의 세력을 지닌 마을의 本宅이다. 明活山에 있었다. 明活山엔 山城도 있다.

여름에 가는 谷良宅은 서라벌 남쪽에 있었다. 六村중 남쪽에 속하는 것은 高墟村이다. 高墟村엔 仇良伐이란 屬村이 있는데 谷良과 仇良이 남나든다면 같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高墟村에는 昌林寺터에 宮室이 있었고 景哀王이 甄萱을 피하여 숨어들었던 「城南離宮」도 있었다. 또 沙梁部로 沙梁宮도 있었다. 谷良宅은 그런 宮의 하나를 指稱하는지도 모르겠다.

가을에 가는 仇知宅은 서라벌의 서쪽에 있었다. 六村중 서편의 마을은 大樹村이다. 村主가 俱(仇)禮馬인 점에서 仇知도 그의 族門으로 보아 仇知宅은 大樹村 牟梁孫氏의 宗宅으로 해석한다.¹⁶⁾

겨울에 가는 加伊宅은 서라벌 북쪽에 있었다. 六村중 북쪽에 해당하는 마을은 加里村이다. 金剛山 栢栗寺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加里와 加伊가 같다고 보면 加伊宅은 加里村의 本宅이 된다.

一然스님은 當代에 유행하던 이야기라 하면서 六村중의 楊山村을 어머니, 大樹村을 아버지, 高耶村을 아들, 加里村을 딸이라 한다고 하였

다. 이 俗談도 楊山村의 例外는 있지만 四節遊宅과 연관되는 이야기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六村중 나머지 二村은 楊山·珍支村인데 「三十五金入宅」중에 楊上宅과 寶(珍)支宅이 列記되어 있다. 楊山에는 金城·月城이(剗公宅) 등이 있고 珍支村엔 本彼宮등이 存在하여서 大宅의 규모는 大同小異하였으나, 周邊 景慨로 보아 四宅이 뛰어났던 모양이다.

四、三十五金入宅考

『三國遺事』의 「三十五金入宅」은 그題에 比하여 실제로 列擧된 數는 三十九宅에 이른다. 신라에는 이보다 많은 富潤大宅들이 있었는데 收錄하지 않고 그중의 대표적인 것 三十五個所만 추린다는 일이 도저히 瞞 수 없어 三十九個所에 達하게 되었던 모양이다.

三十五金入宅(言富潤大宅也)

南宅 北宅 汚比所宅 本彼宅 梁宅 池上宅(本彼部) 財買井宅(度信公祖宗) 北維宅 南維宅(反香寺下坊) 隊宅 寶支宅(反香寺北) 長沙宅 上櫻宅 下櫻宅 水望宅 泉宅 楊上宅(梁南) 漢岐宅(法流寺南) 鼻穴宅(同上) 板積宅(芬皇寺上坊) 別教宅(川北) 衙南宅 金楊宗宅(梁官寺南) 曲水宅(川北) 柳也宅 寺下宅 沙梁宅 井上宅 里南宅(汚所宅) 思內曲宅 池宅 寺上宅(大宗宅) 林上宅(靑龍之寺東方有池) 橋南宅 巷叱宅(本彼部) 樓上宅 里上宅 楡南宅 井下宅. 이 기록은 신라가 통일될 이룩한 뒤 盛期를 맞았을 때의 서라벌 富潤大宅들을 列記한 것이다.¹⁷⁾ 이들은 그 위치로 보아 서라벌 全域에 분포 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四節遊宅이 六村에 基盤된 반면에 三十五金入宅은 六村 이외 金度信 祖家와 같은 새로운 세력의 第宅까지 포함되어 있다. 財買井이 남아 있는 財買井家가 金度信의 祖家라고 하면 靑淵上谷의 靑淵宮이 그의 一族의 本宅일 수도 있었다.¹⁸⁾ 이 宮은 三十五金入宅에 포함되지 않았다.

北宅을 北宮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眞聖王이 北宮에 薨去하였고 北宮公主가 살았다. 北宮公主를 眞聖女王이라 하면 北宮은 王宮에 버금잡고 실제로 惠恭王三年七月에 떨어진 三星을 두고 『三國遺事』는 「北宮庭中」이라 하고 『三國史記』는 「王庭」이라 표현하였다.

靑淵宮 이웃에 松花房이란 願堂을 세운다. 北宅에서는 伯嚴寺를 창건한다. ② 伯嚴寺는 康州界의 草八縣(지금의 陝川郡의 草溪面)에 있었다. 北宅이 北宮이라면 眞聖女王이 관제를 맺은 北宮海印齋를 注目할 필요가 있다. 海印寺 역시 陝川 땅에 있기 때문이다.

六村의 勢力들은 서라벌 외의 지역에 基盤勢力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眞平王 四年(六二六)에 高墟城을 쌓는다. 昭知麻立干 七年(四八八)에는 仇良伐에 仇伐城을 축조하였다. 서라벌 最南端에 속하는 지역인데 高墟村의 基盤勢力이 거기를 근거로 경제력을 양성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新唐書』卷二 新羅傳에 「宰相家不絶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 畜牧海中 山須食乃財 息穀米于人 償不滿庸爲奴婢」하더라는 기사가 있다. 富潤大宅의 세력들이 섬에서 牧畜을 하고 곡식을 많이 거두어 장리버를 놓았으며 거기서 얻어지는 세력으로 私兵을 양성하여 取利에 저항하는 세력을 꺾어 奴婢로 삼았다.

三十五金入宅인 富潤大宅의 이러한 능력은 長興 寶林寺의 佛事에서도 발휘되었다. 憲安王은 武州에서 禪風을 크게 진작시킨 普照禪師 體澄(八〇四~八八〇)에게 迦智山寺에 住錫케 하고 王四年(八六〇)에 長沙縣 副守 金彥卿에게 毘盧舍那佛 一軀를 鑄成시킨다. 아울러 望水(水望)의宅과 里南宅에 下敎하여 金百六十分과 租二千斛를 바치게 한다. 文武王 二年(六六二)에 高구려와의 큰싸움에서 戰功세운 것에 褒賞하여 金度信과 金仁問에게 本彼宮의 財物, 田庄과 奴僕들을 半分하여 준다.

本彼宮은 本彼部에 있었다. 本彼部에는 本彼宅, 池上宅, 巷叱宅이 있었다고 三十五金入宅條에서 一然스님은 註記하였는데 여기의 本彼宅이

本彼宮이라 이해된다. 그렇다면 本彼宅의 財物이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 계속되었던 雁鴨池의 發掘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方塼들이 출현하였다. 그와 같은 塼에 「漢岐部」의 銘이 들어있는 것을 유명한 建築物에서 발견한바 있다. 漢岐部에서 제조납품한 제품이었다고 해석된다. 상당한 물력이 투입되어야 하였을 것이다.

里上宅의 下典은 皇龍寺의 巨鐘을 鑄성한 工匠이었다. ③ 그 工匠이 대표하는 技能이 그 一家에 있었다고 이해된다.

三十五金入宅은 단순한 富家翁이 아니다. 政治力과 함께하여 있다. 六村의 四節遊宅과 같은 경우이다. 景明王의 妃는 長沙宅에서 出嫁하였다. 望德寺門 남쪽의 長沙라는 마을에 있었던 金宅인데 王妃를 배출한 만큼 유력하였다.

三十五金入宅은 신라통일기 眞骨貴族들의 대단한 능력과 豪奢스러운 生活를 할 수 있던 대표적 존재이었다. 이는 骨品制에 힘입은바 컸다. 眞骨만이 行政의 長官職과 軍事의 將帥職을 독점하였다. 祿을 받고 공에 따라 褒賞을 받고 또 戰利品들의 分配에서 굉장한 富力을 이룩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더욱 增殖시켜 나갔다. 三十五金入宅은 그런 배경에서 거대한 第宅들을 이룩하였다.

五、坊里制와 第宅들

慈悲麻立干은 十二年(四六九)에 京都의 坊里名을 제정한다. 金城을 중심으로 두고 그 四面의 터에 道路網을 구성하면서 行政區域을 설정하고 그 名稱을 부여하였다.

昭知麻立干 十二年(四九〇) 三月에 처음으로 市(市)를 열고 四方의 物貨가 소통되도록 하였다.

智證麻立干 十年(五〇九)에 東市를 연다. 東市를 열었다는 사실에 나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서라벌의 터전은 매우 기묘하다. 詞腦野를 중심으로 北·南川과 西川이 흐른다. 그 중심곽에 月城(土築 周三千二十三尺)과 金城(在府東四里 土築 周二千四百七尺)、滿月城(在月城北 土築 周四千九百四十五尺) 등이 자리잡았다. 後代엔 이 주변에 皇龍寺、味吞寺 芬皇寺 등의 巨刹들이 터전을 잡는다. 이들 一郭의 西쪽에 山만한 古墳들이 散在、密集하였다. 南川에서 北川에 이르는 사이를 거의 가로지르듯이 散在、密集하였다. 도심의 西市에 해당할 자리를 古墳들이 차지하였다. 이로 因하여 서라벌은 中國風의 南雀大路를 두고 左右對稱되게 坊里를 設定하는 제도를 따를 수 없었다. 그래서 坊里의 制度를 택하였을 때 먼저 東市를 열어 明活山市의 平野를 이용하였다. 俗說에 芬皇寺前 十里大路라고 하는 것은 이 東市와 연결되는 大路이었다고 추정된다.

중심곽에는 다시 文武王 十六年(六七六)에 창건한 壤宮과 一九年十月에 경영한 東宮(雁鴨池)이 넓게 자리잡는다. 本彼宮등과 수많은 官衙의 建物들과 大小의 國刹들이 촘촘히 들어서게 됨에 따라 비좁은 감이 들게 된다. 文武王은 그래서 서울을 새롭게 만들 계획을 胸中에 갖게 되었다. 이 계획안은 義相의 반대로 좌절되었지만 三國時代 이래 漸進 발전한 형태의 都市에는 모순이 있었음을 암시하여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비정상적인 서울을 校正하는 노력보다는 達句伐과 같은 넓은 곳으로 도읍을 옮기는 일이 차라리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神文王도 갖었으나 역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㉔

그런데로 서라벌은 版圖를 增大하는 발전을 거듭한다. 宮城과 古墳을 중심곽에 둔 상태로 그 四面의 平地에 道路網이 설정되고 바둑판형 길에 의하여 官衙·祠廟·學校·寺院과 第宅들이 들어서게 된다.

盛時가 되었을 때, 서라벌 안의 넓이는 五十五里에 達하였다. 이 五十五里를 一千三百六十坊으로 나누었고 거기에 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의 집이 있어 常住人口를 포용하고 있었다 한다. ㉕ 이 기록에 대하여 一然스님은 서라벌에는 「三百六十坊」이 있었다고 避里村 避里寺의 念佛

師^㉖를 이야기 하면서 달리 쓰기도 하였다. 또 「三國史記」의 견해도 다르다. 「王都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 三十五里六部」^㉗라 하였다. 현재의 慶州市街나 조선조 때의 府城 규모로 보아서 三十五里、五十五里의 넓이를 想定하기 어렵다.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되어 있는 慶州府의 區域은 상당히 넓은 것이었다.

東 至蔚山郡界六十一里 至長鬐縣界八十三里
南 至彥陽縣界六十二里
西 至淸道郡界七十六里 至永川郡界五十三里
北 至迎日縣界三十六里

南北의 長은 九十八里이고 東西로는 蔚山에서 淸道까지 百三十七里、長鬐에서 永川까지는 百三十六里에 달하였다. 一里를 三百步로 換算한다면 南北長은 二千九百四十步이고 東西廣은 百三十六里일 때 四千八十步가 된다. 신라 때와 조선조 때의 尺度는 서로 길이가 다르지만 比肩하여 본다면 신라 때 보다 조선조의 판도가 넓다.

신라의 坊里를 계산한 넓이는 대략 바둑판형 道路가 열린 부분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井田形區劃 밖의 版圖까지 치면 「三國史記」의 長廣 보다는 넓었다고 생각한다. 佛國寺 까지 가는데 처마 밑으로 가면 비 맞지 않고 갈 수 있다는 俗說이나 「自京師至於海內」라고 하고 「比屋連牆」^㉘하였다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坊里가 「一千三百六十坊」이란 기록은 아무리 넓더라도 너무 많은 數이다. 오히려 「三百六十坊」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말할 수 있다. 理想形인 집을 짓는 형상으로 「六六三十六區」로 하면 天地의 大數에 符應한다고 한다. ㉙ 고 하였으므로 그의 十倍인 「三百六十坊」을 설정하였을 것으로 推定하는 것이다.

「三十五里」와 「五十五里」의 차이는 바둑판형 道路網이 형성된 넓이는 三十五里이고 서라벌의 全版圖는 五十五里이었다고 할 수 있다.

坊里와 道路가 整備되는 단계에서 西市와 南市가 孝聖王四年(七四〇)에 열린다. 東市에 비하여 무려 二百三十一年만의 일이었다. 初期都市가 東南으로 발전하였던데 비하여 이 시기가 되면 西川の 부근과 南山東麓의 南市가 開市된다. 동원으로 편중되었던 도시가 비로서 方形의 一郭을 이루게 되면서 十七萬餘戶가 들어서게 되었다.^{②③}

盛時의 서라벌 또는 서라벌 주위의 집들은 모두 기와집이었다.

三十五金入宅 이외에 史記와 遺事등엔 車得公家, 月遊宅, 金周元家, 今毛舍知家, 金欽運宅, 角干 大恭家, 康申公舊居, 主力公宅, 良里公宅, 紫草娘宅 등이 발견된다.^{②④} 이중의 今毛舍知宅은 皇龍寺의 이웃에 있었다. 皇龍寺塔의 그림자가 뜰에 거꾸로 드리우고 한달이나 비추었다고 한다. 皇龍寺塔의 그림자가 비추었다고 하면 今毛舍知宅은 皇龍寺의 東北間이나 西北間에 있어야 한다. 東南에서 돈는 햇볕을 받았다면 그 그림자는 西北으로 간다. 反面에 지는 햇볕에 그림자가 생겼던 것이라 하면 皇龍寺 東北間에 있어야 한다. 만일 今毛舍知宅이 西北에 있었다고 하면 芬皇寺 大門前 東西大路에 沿한 지금의 慶州高等學校 부근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 부근에는 一九三〇年代 까지만 하여도 돌자담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遺構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한다. 이들 돌자담들은 建物外部의 垣牆이었다고 보이며 대략 비슷한 넓이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다.^{②⑤} 보편적인 집의 흔적이었다고 생각된다.

今毛舍知宅은 이들 보다 규모가 큰 壯麗한 第宅이었다. 二百尺이 넘는 皇龍寺塔의 그림자를 內庭에 받을 수 있다면 그 넓이가 굉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月遊宅은 金陽의 軍士에 추격받은 閔哀王이 뛰어들이던 第宅이다. 이 月遊宅은 離宮으로 추정한다.^{②⑥} 宅과 宮이 出入하는 例가 된다.

車得公家が 皇龍寺와 皇聖寺 사이에 있었다고 하였다. 밝혀진 바로는 그의 집은 宮이었다고 하는데 대규모 집들이 三十五金入宅과 더불어 到處에 있었다고 하겠다.

六、屋舍의 政策

넓은 坊里에 草家が 한 채도 없었다. 憲康王 六年(八八〇) 九月九日에 王은 月上樓에 올라 사면을 바라다 본다. 「京都의 民屋이 相屬」하였다. 草家が 없다. 侍中 敏恭에게 정말 초가가 없는가를 묻는다. 「孤聞한즉 今之民間에선 覆屋以瓦만 하고 不以茅한다는데」^{②⑦}하고 질문한다. 侍中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

芬皇寺 동쪽 마을에 가난한 집이 있었다. 가난한 집의 事情을 듣고 딱하게 여겨 孝宗郎은 백석의 곡식을 보내준다. 郎徒들도 버를 거두어 친석을 마련해 준다. 소식을 들은 임금도 오백석을 더 주고 군사를 보내서 호위하게 한다. 임금, 花郎, 郎徒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그만큼 있었다.

屋舍의 政策에서 국가 소유의 집을 褒賞으로 줄 수 있게 하였다. 가난한 집에 五〇〇석 곡식을 주면서 집 한 채도 함께 주었던 것은 그런 제도를 따른 것이었다.

집을 준 사례는 또 있다. 牟梁里 孫順의 埋兒事件에서 石鍾소리 들은 임금이 자초지종을 듣고 집 한 채를 주고 매년 粳五十碩을 주기로 하였다. 孫順은 옛집을 바쳐 절을 만들어 弘孝寺라 하였다. 가난한 집이 절이 될 수 있었다.

이런 賜家의 制度는 三國의 各國에서도 시행하고 高麗와 朝鮮朝에도 계승되었다.

집은 때로 災難을 당한다. 서라벌 내의 집들도 火·水災의 難을 겪었다.

祇摩尼師今 二十年(一一二) 五月에 큰 비가 쏟아져 집들이 떠나려 갔다.

味鄒尼師今 元年(二六二) 七月에 金城西門이 불타면서 인근의 집 百餘區가 연소된다.

訖解尼師今 四十一年(三五〇) 四月에 열흘동안 쏟아진 비로 물이 석
자나 넘어 집들이 떠내려 갔다.

昭知麻立干 十八年(四九六) 五月에 關川이 넘쳐 二百餘戶가 떠내려
갔다.

眞平王 十一年(五八九) 七月에 도성 서쪽에 홍수가 저서 三萬三百六
十戶가 떠내려 가고 二百餘名이 죽었다. 이들은 국가에서 救恤하는 것
이 정책이었다.

住家の 政策에서 필요하면 집을 下賜할 수 있듯이 필요에 따라서는
他地域으로 옮기는 일도 하였다. 知證麻立干 十五年(五一四)에 阿戶村
에 小京을 신설, 六部와 南方의 人戶를 옮겨 도시형태를 구성 하였다.
眞興王十八年(五五七)에는 國原을 小京으로 만든다. 이듬해 봄에 貴威
의 子弟와 六部の 豪民을 이주시켜 國原京을 충실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政策方向이 있어 집 짓는 일, 制約하는 일들을
간섭하기도 하였다. 三國史記 雜志 第二 屋舍條에는 大小臣民들이 짓고
살 수 있는 집의 규모와 形狀에 관한 법령이 실려 있다. 眞骨로 부터
百姓의 집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다루었다. 이 조항은 신라의 萬歲之
法の 내용이고 삼국시대 이래로 遵守되어온 법령이라고 생각된다.

新羅屋舍

眞骨 室長廣 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簷 不雕懸魚 不飾以金銀
鑰石五彩 不磨階石 不置三重階 垣牆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錦罽野
草羅 屏風錦繡 床不飾玳瑁沉香

六頭品 室長廣 不得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簷重拱扶牙懸魚 不飾以
金銀鑰石白鐵五彩 不置巾階及二重階 階石不磨 垣牆不過八尺 又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罽繡綾 屏風禁繡 床不得飾玳瑁紫檀沉香黃楊 又禁錦薦
不置重門及四方門 廐容五馬。

五頭品 室長廣 不得過十八尺 不用山榆木 不覆唐瓦 不置獸頭 不施飛簷重
拱花斗牙懸魚 不以金銀鑰石銅鐵五彩爲飾 不磨階石 垣牆不過七尺 不架以

梁 不塗石灰 簾緣禁錦罽絢 不作大門四方門 廐容三馬。

四頭品 至百姓 室長廣 不得過十五尺 不用山榆木 不施藻井 不覆唐瓦 不
置獸頭飛簷扶牙懸魚 不以金銀鑰石銅鐵爲飾 階砌不用山石 垣牆不過六尺
又不架梁 不塗石灰 不作大門 四方門 廐容二馬
外眞村主 與五品同 次村主 與四品同 高句麗 百濟屋舍 未聞

이 기록은 매우 정돈되어 있어서 띄어쓰기나 표현이 概括的이어서
當代의 집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細部の 形狀을 다 알아내기 어렵게 되
어 있다. 그래서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 구구하게 되는데 筆者의 경우우도
이의 해석을 數三次 試圖해 본 바 있었다. ⑤

이런 制限令은 비단 통일신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三國
의 다른 나라나 高麗에도 있었을 것이나 그 內容은 傳하여 오지 않고
있다. 朝鮮朝에는 萬歲之法이 있어 『經國大典』의 法典에 登載되어
있다.

王權을 수호하고 臣僚들 品階를 嚴正히 하여야 한다는 基盤에서 이런
法令과 制約이 구성되었다.

七、新羅屋舍의 建築狀

屋舍條의 內容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芻見 一覽表를 만들어
보았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간추려진다. 이들 중에서 다
할 수 있었을 때 집이라 하면 形狀이 되는가를 알기 위하여 眞骨堂
에 欄하늘 더 두어 보았다.

이 表에서 摘記한 內容으로 보아 眞骨과 六頭品以下와는 顯격한 차이
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또 六頭品까지와 五頭品以下는 한 단계 또
차이가 나는데 百姓의 집이 五頭品과 크게 격차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
注目된다.

百姓의 집은 辰韓시대의 커튼집에선 벗어나 있다. 木造의 地上建物로

三國史記屋舍條項早見一覽表

區分		骨品別		眞骨	六頭品	五頭品	四百頭品姓
正寢	平面	室長廣	24尺以上	24尺以下	21尺以下	18尺以下	15尺以下
	材木	山・木	使用可	使用可	使用可	不可	不可
	지붕	唐瓦	可	不覆	不覆	不覆	不覆
		獸頭	設置	設置	設置	不置	不置
	천장	藻井	施工	施工	施工	施工	不施
	처마	飛簷	施工	不施	不施	不施	不施
	架構와 공포	重楹拱牙	施工	施工	施工		
		重楹花斗牙				施工	
		單楹拱牙					施工
	합각	懸魚	裝置	不雕	不雕	不雕	不雕
	裝飾	金銀	飾	不飾	不飾	不飾	不飾
		鎡石	飾	不飾	不飾	不飾	不飾
		白鐵	飾	飾	不飾	不飾	不飾
		銅鐵	飾	飾	飾	不飾	不飾
		五彩	飾	不飾	不飾	不飾	不飾
	石材	山石	使用	使用	使用	使用	不可
	治石	階石	磨製	不磨	不磨	不磨	—
	階石	三重階	設置	不置	不置	不置	—
		巾階二重	階設	置設	不置	不置	—
	副屬建物	垣牆	類	8・以上	8・以上	8・以下	7・以下
梁棟			施工	不施	不施	不施	不施
石炭			使用可	不塗	不塗	不塗	不塗
門		重門	設置	設置	不置	不置	不置
		大門	設置	設置	設置	不作	不作
		四方	設置	設置	不作	不作	不作
馬廐	廐容	五馬以上	五馬以上	五馬	三馬	二馬	
裝	簾緣						不用
		錦	使用	不用	不用	不用	
		罽	使用	不用	不用	不用	
		繡綾	使用	不用	不用	不用	
	野草羅	使用	不用	不用	不用		

置		綾 絹	使用	使用	使用	不用	
		絶	使用	使用	使用	不用	
	屏風					不用	不用
		繡 飾	繡 飾	禁 繡	—	—	—
	이불	錦 薦	使用	使用	—	—	—
	床	飾 玳 瑁	可	不可	—	—	—
		沉 香	可	不可	不可	—	—
		紫 檀	可	可	不可	—	—
		黃 楊	可	可	不可	—	—

구조된다. 山石으로 받들, 柱礎 놓는 일은 不許되나 기와 엮는 일까지 용납되었다.

高句麗民戶는 대부분이 움집이라는 점에서 酷寒을 대비한 구조이었다고 하겠는데 新羅의 屋舍들은 高溫多濕을 고려하였다. 山谷間의 폐적한 기후에 맛도록 地上建物로 발전하였다. 憲康王과 宰相과의 대담에서 「京都民屋相屬」하였다는 집은 그런 집들이었다.

憲康王은 또 「炊飯以炭不以薪」한다는 데 사실이나고 묻는다. 그렇다고 대답한다. ②③ 밥 지어 먹는 일에 나무 대신에 숯을 피어 끄스름 나는 일을 피하였다는 것이다.

현대의 생각으로 밥 짓는 일을 아궁이 있는 부뚜막과 연관 시키기 쉬우나 新羅엔 구들(溫埃)이 없었다. 가난한 집에서는 지금 濟州島의 古來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화덕 같은 것을 만들어 썼고 그보다 나은 사람은 흠을 빚거나 돌을 다듬거나 무쇠로 끓여부어 만든 화덕을 사용하고 上流第宅에서는 받잇간을 따로 만들어 安岳第三號墳壁畫의 받잇간 같은 구조를 하여 이용하였다.

이 점을 見聞한 중국인들이 『新唐書』 東夷傳 新羅에 「冬則作窰堂中」하였다고 하고 이어 「夏以食水上」하였다고 기록하였다. 新羅에서는 智證麻立干 六年(五〇五)에 벌써 「始命所司藏水」②④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어서 三十五金入宅 정도의 生活水準이면 얼음을 채운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

고구려에서도 움집의 民戶를 빼고는 上流第宅에 구들이 없었다. ②⑤ 또 柱間의 담벼락 간막이도 없었다. 帷幕(房帳)을 느리고 假房을 室內에 따로 설치하고 살았다. 古墳壁畫의 生活狀圖에서 그런 구조물을 자세히 볼 수 있다. ②⑥

신라 第宅 간막이에 받(簾)과 屏風을 이용하였다. 여름엔 받을 느리고 겨울엔 병풍을 치고 살았다. 이들은 집에 달린 裝置이었어서 不可缺한 것이므로 屋舍條에서 그 禁奢를 거론하였다.

昭聖王 二年(八〇〇) 四月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를 꺾고 기와를 날렸다. 瑞蘭殿의 받도 어디론가 날라가 버리고 말았다. ②⑦ 雁鴨池 조사에서 池中에 빠져 있는 殿閣에 사용하였던 「받걸이쇠」를 찾아내었다. 物證과 記錄이 相符한다.

屋舍條에 제일 注目되는 부분은 室의 平面構成이다. 一五·一八·二一·二四尺을 넘을 수 없는 크기에서 室을 구성하고 하였다. 그런 室이 하나 뿐이어야 하는지 여럿 있어도 좋은지가 明記되어 있지 않다. 그렇더라도 正方形平面에 집 짓는일이 쉽지 않다는 구조상의 제약을 감안하면 一室以上이 連于되어 있었다고 믿는다. 一棟에 數室이 있었다.

金庾信의 臨終處는 「私第之正寢」이었다. ②⑧ 正寢은 안채(內室)이므로 相對的인 건물이었다는 의미를 지녔다. 數棟의 건물들이 있었다고 해석된다.

高句麗의 壁畫 建物圖의 중심과에도 數棟의 건물이 묘사되어 있다. 金 度信의 第宅과 흡사하였을 것으로 느껴진다.

집 짓는 木材는 소나무와 雜木들이 사용되었다. 六頭品 以上에서는 山楡木을 쓸 수 있었다. 집 짓는 부근에서 벌채하기도 하였다. 興輪寺를 初朔할 때 그 材木을 天鏡林에서 잘라 썼다. 「梁棟之材 皆於其林中 取足」하는 정도이었다. 또 石材도 그 숲에서 얻을 수 있어 「而階礎石甃 皆有之」하였다. ④

도시가 커지고 十七萬餘戶가 들어차게 되면서는 서라벌 지경 밖에서 資材들이 搬入되어야 하였다. 山楡木 쓸 수 없다는 制限은 木材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웠다는 暗示로 해석해야 옳다. 특히 皇龍寺九層塔과 같은 壯麗한 건물을 지으려면 木材의 수집이 전국에 걸쳐 있을 것이다. 直材巨材가 뒤물려 없었다.

수집에는 輸送의 수단이 있어야 한다. 訥祇麻立干 二十二年(四三九)에 牛車만드는 법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여서 味鄒王陵 동편 藍泉부근 廢古墳群 發掘時 出現한 精製의 수레(비록 模倣型이나)가 造成될 수 있었다.

治裝하는 用材가 自家製造되지 못하면 外國에서 輸入하는 수 밖에 없었다. 起居의 편의와 安樂과 쾌적을 위하여는 巨金을 주고라도 구입하였다. 三十五金入宅 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第宅들에선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屋舍」條에 簾(簾)과 屏風、床、薦을 言及하였다. 이들은 屋舍裝置에 基幹이 되는 유형들이기 때문이다.

구들이 없는 맨바닥의 室에선 신발 벗고 올라 앉을 床이 있어야 한다. 卓子和 나란할 榻床이 있어야 하고 別設한 假房의 寢床도 있어야 한다. 床을 만드는 紫檀은 스마트라나 자바產을 들여와야 하였고 床을 장식하는 玳瑁는 보르네오等地에서 사와야 하고 羊毛을 원료로 직조한 毛氈類는 페르샤에서 完製品을 들여 오던가 原料를 수입하여 직조하여야 되었다. ⑤ 그의 비단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썼다. 簾(簾)의 가장자리도

런 두르는데 이런 비단을 썼다. 겨울에 치는 屏風엔 繡縵아 아름답게 꾸며졌다. 일종의 房帳과 같은 구조물이었다고 짐작되는데 겨울에 몇 겹 느리면 능히 추위를 막을 수 있다.

寢床엔 이불이 있어야 한다. 비단이불이나 氈布가 사용되었다. 아름답게 織繡한 무늬가 찬란한 것들이었다. 이들의 華麗함은 고구려의 壁畫에서도 발견된다.

正寢이나 그의 起居、執務、宴會、祭儀등 用途에 충족되는 건물들이 中心部에 數棟 있어야 마땅하다는 想定 이외 屋舍條에 明記된 것은 馬廐와 行閣이다.

馬廐間은 따로 짓는다. 骨品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어떤 形狀인지 알 수 없으나 高句麗의 마굿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 安岳第三號墳 등의 壁畫에 묘사되어 있다. 대략 비슷한 구조이었다고 推定된다. 벽화에는 외양간도 있다. 신라에서도 牛耕하였으므로 당연히 외양간이 있을 것이다. 벽화엔 수렛간이 또 있다. 二間에 자기 다른 모양의 수레가 격납되어 있다.

雜志에 骨品에 따른 車騎制가 明記되어 있다. 아름답게 치장하는 男 女用 수레를 구분하여 制約하였다. 수렛간도 마땅히 있었다.

벽화에는 肉庫間 방앗간 반딧간과 용두레 있는 우물이 그려져 있다. 구색이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다. 지금도 경주에는 關英井、財買井 등의 이름들과 함께 古井의 우물돌들이 남아있다. 화강암을 다듬어 잘 만든 秀品들이다. 「屋舍」條目에는 없으나 當代엔 이들이 存在하였다.

고구려에는 집집에 桴京이라 부르는 小倉이 있다고 하였다. ⑥ 財貨 穀物 儲備用 庫間이 신라 第宅에도 있었을 것이나 明文이 없다.

庫間은 行閣을 이용하는 수도 있다. 신라시대에도 行閣이 있었다. 屋舍條에 垣牆으로 表記되었고 지금의 담장 概念에서 단순한 맞담으로 이해하려는 추세에 숨어 있었다. 이번 試圖에서 처음으로 注目하게 되었다. 「不施梁棟」이란 표현을 분석하여 본 것이다.

四方門、大門、重門은 이 行閣에 설치되게 마련이다. 조선조 第宅의

바깥행랑 중행랑들이 이미 신라때 있었다고 보아야 옳다. 壁畵의 建物 圖에도 그런 行閣이 표현되어 있음에서 고구려에도 行閣이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八、三國史記 屋舍條의 解釋

眞骨室 넓이는 長廣二十四尺 넘을 수 없다. 기와로 지붕 잇되 막새 기와 사용 못한다. 부연 잇는 겹처마 구조불가. 지붕 좌우끝 박공에 懸魚를 장식할 수 없다. 金銀, 鑰石으로 장식하거나 五彩로는 丹青할 수 있다. (五彩以下로는 施彩할 수 있다.) 다듬은 돌로 섬돌, 멧돌만들지 못하며 멧돌을 세벌대로 구조할 수 없다. 담장은 서까래 거는 行閣으로 하되 마루(棟)를 짊을 수 없고 바깥벽에 石灰 바를 수 없다.

밭의 가장자리에 비단, 옹(罽), 繡는 비단으로 장식할 수 없고 屏風(房帳)에도 繡장식 못하고 床에 玳瑁, 沉香을 쓸 수 없다.

六頭品室은 二十一尺 넘지 못한다. 기와지붕의 막새기와 사용 不可, 겹처마, 종보 없는 五檼以上の 架構와 拱牙의 結構, 합각의 懸魚는 설치 못한다. 金銀, 鑰石, 白纈을 써서 장식하는 일, 五彩로써 丹青하는 일은 禁한다. (四彩以下이면 施彩) 섬돌 설치에서 좌우 소멧돌 설치나 멧돌의 두벌대 구조는 안되며 돌을 치밀하게 다듬어도 안된다. 담장 높이는 八척, 架構하는 行閣을 세우되 마루를 짊지 못하고 바깥벽에 灰바리지 못한다.

밭 가장자리에 罽와 繡를 사용을 禁하고 繡는 屏風은 쓰지 못한다. 床은 玳瑁, 紫檀, 沉香, 黃楊木을 쓸 수 없고 비단 이불의 사용도 금한다.

담장(行閣)에 樓門과 四方門을 설치하지 못하고 다섯필 말을 수용할 마굿간을 짓는다.

五頭品, 室長廣은 十八尺이하이다. 山榆木 사용 불가. 기와지붕의 막새기와 獸頭 설치는 禁한다. 겹처마, 종보 없는 五檼架와 花斗牙의 結構, 懸魚의 장치는 금한다. 金銀, 鑰石, 銅鑰으로 장식할 수 없고 五彩로는 丹青못한다. (五彩以下로는 施彩) 멧돌 외벌대. 다듬어 설치할 수 없다. 담장높이 七尺 넘지 못하고 行閣은 梁을 걸 수 없다. 바깥 벽엔 灰바리지 못한다.

밭 가장자리에 錦, 罽, 綾, 絹, 絁로 장식 못한다. 大門, 四方門 설치 不許. 세 필 말 들어갈 마굿간만 지어라.

四頭品에서 百姓, 室長廣은 十五尺넘지 못한다. 山榆木 쓸 수 없고 우물받자 할 수 없다. 막새 獸頭를 지붕에 장치 못하고 懸魚 다는 일도 금한다. 겹처마, 공포의 구조는 不可. 金銀, 鑰石, 銅鑰의 장식. 山石을 써서 멧돌, 주조를 만들지 못한다. (丹青은 전혀 할 수 없다) 담장높이 六尺. 梁을 거는 行閣으로는 할 수 없고 바깥벽에 灰바를 수 없다. 大門, 四方門 설치는 不可. 마굿간은 두필의 말을 기를 수 있는 넓이로 짓는다.

以上の 해석에서 종전과 달라진 見解는 重袱, 五彩, 垣牆에 대해서이다.

前記 一覽表엔 四頭品 以下에선 重袱이 없다. 重袱이 大檼, 宗檼의 의미일 때 종량이 없으면 架構는 三檼架法이 된다. 공포 없이 민도리집으로 구조함이 보통이다. 우물받자 대신 샷갓, 연등친장을 만든다. 조선조 때의 집들도 이런 구조이었다.

五頭品에는 重袱, 花斗牙가 있다. 보아지 있고 종량 잇는 架構는 五檼架가 보편적이다.

六頭品에선 「重袱拱牙」라 하였다. 공포구조가 잇는 重袱形이면 七檼架일 수도 있다. 眞骨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柱三包의 七檼架 이상의 架構도 가능하다.

五彩는丹青의別稱으로만 받아들여하였다. 四頭品에五彩의言及이 없음을 注目하였다. 百姓의 집에 施彩할 수 없음은 五頭品 以上에서는丹青할 수 있되 三·四彩로 하면 「五彩」에 저촉되지 않는다. 壁畫의 高구려 第宅들이 화려하게丹青되고 있음을 注意한 것이다.

垣牆 기록은 二種이다. 五·四頭品은 「不架以梁」 「不架梁」이고 眞·六頭品은 「不施梁棟」이라 하였다. 梁만 걸 수 있는 것과 梁棟을 俱存시키는 구조이다. 가적지붕, 三檠架의 行閣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高구려 建物圖에도 完연한 行閣이 있다. 신라에도 壁을 친 行閣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解釋을 前提삼고 一覽表, 眞骨前欄에 해당할 짐을 짓는다 면 그 형상은 安岳古墳壁畫에서 보는바와 같은 대규모의 壯大한 第宅이 된다. 거기에 金銀 등으로 장식하고丹青하고 아름다운 비단을 늘어 치장하는 豪華를 걸드리면 된다. 신라와 高구려의 上流 第宅이 豪華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遺蹟을 現存하는 第宅에 比肩하자면 昌德宮의 演慶堂을 들 수 있다. 구들과 마루를 빼고, 柱間을 넓혀 室의 長廣에 맞게 하고 문짝 떼어낸 간막이에 화려한 발이나 병풍을 치고 金銀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丹青하면 아주 흡사할 것이다.

三十五金入宅이나 四節遊宅들은 규모가 월등하였을 터인즉 演慶堂을 그 크기만큼 키우면 新羅 第宅에 방불하리라 생각된다. 연경당에 없는 重(樓)門이 첨가되면 좋을 것이다.

屋舍條의 條目을 치밀하게 해석하는 일에 高구려 建物圖와 조선조의 第宅이 比肩되는 자료가 되었다.

九、結語

『三國史記』屋舍條의 해석은 지금까지 그 표현된 文面만을 위주로 삼아 單語가 지니고 있는 內容만을 탐색하려 하였어서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는 다른 資料들과의 비교를 제아하였다. 그만큼 눈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해석을 거듭하면서도 시원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신라의 집이 신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三國의 다른 나라나 고려, 조선조와 연계되어 있어서 屋舍條의 考察은 全歷代期間의 知見의 필수적이다. 이 간단한 원리를 그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三十五金入宅, 四節遊宅을 注目하면서 이들 上流 第宅이 高구려 고분 벽화의 建物圖와 出入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 착안하였다. 일단 그 단계에 이르러 보니 屋舍條目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었던 사항들이 쉽게 이해되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해석을 또한번 試圖하여 보았다. 그러나 아직 知見의 不足을 다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번에도 試圖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方法을 알게 되었으므로 차분한 노력만 있으면 상당한 進境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註)

- ①, 金正基 『韓國住居史』(『韓國文化史大系』Ⅳ 一九七〇年), 申榮勳, 『韓國美術史』(二) 建築史(同書), 申榮勳, 『三國史記에 보이는 屋舍條와 民家』(『史學志』三 一九六九), 尹張燮 『韓國建築史』(東明社 一九七二), 金正基 『文獻으로 본 韓國住宅史』(『東洋學』七, 一九七七), 朱南哲 『韓國住宅建築』(『志社』一九八〇), 申榮勳 『한국의 살림집』(悅話堂 一九八三),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二) (『建築雜誌』一九三〇年三月號)
- ②, 申榮勳 『한국의 살림집』(悅話堂, 一九八三年刊)에서 「住宅行政」을 고찰하는 중에 「신라시대 주택행정」이란 項에서 三十五金入宅과 屋舍條를 비교해가면서 해석을 시도한바 있었다.
- ③, 『三國遺事』卷一 新羅始祖 赫居世王 「營宮室於南山西麓今昌林寺」
- ④,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一 始祖赫居世居西干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六村」
- ⑤, 『三國志』魏志 東夷傳 第三十 弁辰條
- ⑥, 『舊唐書』列傳 第一四九 高句麗 「살림집은 반드시 山谷에 짓는데 대부분 이엉을 이어 지붕 만든다……가난한 백성들 속속으로 움집에 長坑을 설치하고 불을 지펴 따뜻하게 겨울을 난다」
- ⑦, 『三國遺事』卷一 辰韓 「有十二小國 各萬戶……」
- ⑧, 『韓國史』古代篇 第六 「韓의 新形勢」
- ⑨,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一 始祖赫居世居西干條

- 10) 同王二十一年條。「築京城 號曰金城」
- 11) 李丙燾 「古代南堂考」(서울大學校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一)
- 12) 『三國史記』에서는 「金城東 民屋 陷爲池」하였다고 記述하였다.
- 1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十一 慶州府山川條에 「東川 一云北川 一云關川 在府東五里」라고 있다.
- 14) 『三國遺事』 卷一 新羅始祖 赫居世王, 「浴於東泉 東泉在詞腦野北」의 東泉을 金城東池로 想定한다.
- 15) 慶州市編 『新羅의 빛』(一九八〇年 刊) 曇巖寺條
- 16) 同書 狼山條. 讀書堂이라 칭하는 孤雲故宅址가 西麓에 있다.
- 1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十一 慶州府 古跡條 鮑石亭項.
- 18) 『三國遺事』 王曆에 孝恭王이 죽어 「骨葬于仇知堤東山脇」하였다는 仇知의 이름이 보이나 같은 이름인지는 알 수 없다.
- 19)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震檀學會 一九五九, 三品彰英 遺撰 『三國遺事 考證(上)』(一九七五), 李基東 「新羅金入宅考」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九八四)에서는 이 기록의 시기를 憲康王代로 보았다.
- 20) 『三國史記』 卷三十九 職官(中) 靑淵宮典, 新靑淵宮典條,
- 21) 『三國遺事』 卷三 塔像 伯巖寺, 石塔舍利條
- 22) 長興 寶林寺 普照禪師彰聖塔碑文(朝鮮金石總覽(上)에 「望水宅」이라 함.
- 23) 『三國遺事』 卷三 塔像 第三 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鐘條
- 24)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 第八 神文王條
- 25) 『三國遺事』 卷一 紀異 第一 辰韓條
- 26) 『三國遺事』 卷五 避隱 第八 念佛師條,
- 27) 『三國史記』 雜志 第三 地理 一,
- 28) 『三國遺事』 卷二 紀異 第二 處容郎과 望海寺條
- 29) 『高麗史』 卷一 高麗世系條
- 30) 『高句麗全盛之日 二十一萬五百八戶』 「百濟全盛時 十五萬二千三百戶」의 규모이었다고 한다.
- 31) 申榮勳 『한국의 살림집』(悅話堂 一九八三年) 「新羅時代의 住宅行政」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바 있었다.
- 32) 藤島亥治郎 「韓鮮建築史論(其一)」 王京宅址條에 井田의 道路網과 관계 있는 遺構가 있다고 하였다. (『建築雜誌』 一九三〇年三月號)
- 33) 李丙燾譯註 『三國史記』 該條,
- 34)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十一 憲康王六年條
- 35) 筆者는 一九六九年 「三國史記」에 보이는 「屋舍」條와 民家(『史學志』三輯)라는 言葉を 위치하여 「韓國美術史(二) 建築史」(『韓國文化史大系』 一九七〇年)와 「韓屋과 그 歷史」(東夷文化社 一九七五年) 그리고 『한국의 살림집』(悅話堂 一九八三年)에서 이 屋舍條의 해석을 거듭하여 왔다.

- 36) 註三四와 同一條項.
- 37)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智證麻立干 六年冬十一月條
- 38) 申榮勳 『한국의 살림집』 上卷 「한옥의 定型」에서 高句麗 上流第宅의 形狀을 충분히 考察하였다.
- 39) 同上書에서 高句麗遺例를 壁畫에서 발췌하여 插圖로 提示하였다.
- 40)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十 昭聖王條
- 41) 同書 列傳 第三 金庾信 下,
- 42) 『三國遺事』 卷三 興法 第三 原宗興法 厭觸滅身條
- 43)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 스랄商人의 貿易品」(『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一九六九)
- 44) 『三國志』 魏志 東夷傳 第三十 高句麗條